

아름답고 따뜻한 코미디 영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실땀 쇼메 감독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은 2013년에 만들어진 영화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개봉을 두어 차례 해온 명작이기도 하다. 며칠 전에도 재개봉이 되어 영화관을 찾았다. 타이틀을 보면, 소설가 프루스트의 이름이 연상된다. 그럴 뿐 아니라, 시나리오를 쓴 감독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대놓고 벤치마킹했다. 소설가 프루스트는 이 책을 통해 '무의식적 기억을 통한 회상'으로 과거 행복했던 시간을 현재에 불러일으키고자 했는데, 영화 역시 이를 그대로 대입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들렌. 영화에서도 마들렌과 홍차를 매개 수단으로 유년시절의 시간을 현재에 회귀시키는 방법을 차용했다. 다만, 시나리오를 쓴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 있던 스토리는 좀 달랐다.



실땀 쇼메 감독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이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목표로 경연 준비중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모들의 목표이자 꿈이다. 내면에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에게 유일한 낙은 슈케트를 사먹는 것뿐. 어느 날 우연히 이웃인 마담 프루스트(배우 안느 르나이)의 집을 방문한 폴은 그녀가 아파트 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마담 프루스트는 폴이 자신의 비밀정원을 알게 된 사실을 기억에서 지우게 하려고 그녀가 키우는 작물로 우려낸 차에 아스파라가스를 넣는다. 폴이 차와 마들렌을 먹자 순간 기면상태에 빠지고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을 다녀온다. 마담 프루스트는 폴의 집열쇠를 쟁겼다가 몰래 폴의 집에 들어가 폴이 아빠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벼운 생각이 든 마담 프루스트는 폴이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와 마들렌을 대접한다.

영화는 마담 프루스트의 차와 마들렌이 유발하는 과거 시간으로의 경험이 폴의 정신적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나가고 있다. 아빠가 엄마를 학대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와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의 현격한 차이는 상흔과 치유 만큼의 거리가 있음을 영화는 보여준다. 이 치유는 33세의 폴에게 콩쿠르에서 '청년독주자상'을 안겨줄 만큼 대단한 것이어서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인간의 상처는 반드시 꺼내고 들여다봐야만 할 것 같다.

감독은 무의식의 세계를 어렵지 않게 그려냈다. 영화의 첫 신은 아기 폴의 시점에서 카메라 워킹이 시작된다. 폴의 아빠는 그랜드캐년 대형 광고판에 정신이 팔려 있다. 영화의 마지막 신은 폴의 아기의 시점이다. 폴과 아내 미셸(배우 키 카임)이 그랜드캐년을 바라보고 있다. 첫 신에서 엄마 아니타(배우 파니 투통)가 아기 폴이 말하는 첫 단어 '파파'에 놀라운 기쁨의 탄성을 내지르듯, 마지막 신에서는 미셸이 아

기가 말을 한다며 탄성을 내지른다. 첫 신과 마지막 신을 아기의 시선으로 연출한 것이 정리와 마무리를 잘한 것만양 인상적이었다. 영화를 끌고 가는 음악이 매력적이었다. 피아노 연주곡이 폴의 무의식 세계 속에 등장하는 개구리 밴드와 믹스되는 신선한 조화 그리고 우쿠렐레 연주가 저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웠나 싶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등등 음악이 여운으로 강하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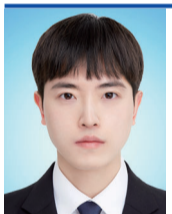
두 이모의 의상이 아니었다면 코미디 장르임을 잊을 뻔했다.

그래도 구성을 되새겨보거나 곱씹어보면 코미디가 분명하기는 하다.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한 구절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일은 이렇듯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영화에서처럼 상처였던 과거의 서사를 수정하고 치유받은 현재로, 행복을 향해 나아갈 미래를 찾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는 잠재의식 속에 갇혀 있던 이드와 에고를 통합, 슈퍼 에고를 지향할 전환점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남성의 무의식 인격의 여성적 측면 아니마와 여성의 무의식 인격의 남성적 측면 아니무스의 통합으로 향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마담 프루스트가 남긴 쪽지에는 'Vis ta vie (내 인생을 살라라)'라 적혀 있다. 나쁜 기억일랑 행복의 무게로 가라앉게 하고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모두에게 필요하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스토리가 있는 영화로 리마인딩 해 봄도 새로운 일이다.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섬세한 잣대 필요한 '차등적용'



취재수첩
박찬
취재2부 기자
chan.park@jnilbo.com

"서울에서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알바생은 시간당 수백명의 고객을 응대하는 반면 지방의 알바생은 10명의 고객도 상대하지 않는다. 동종 프랜차이즈 식당의 같은 메뉴더라도 서울·지방 간 차등

격을 적용해 서울에선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이와 연계해 서울의 알바생이 지방의 알바생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는 추세로 변화해 나가야 맞지 않을까?"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청취자의 의견이다.

이처럼 '차등적용'이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 쟁점화가 되고 있다. 차등적용은 업종별 최저임금부터 전기요금 지역별 부과 등을 놓고 논쟁이 활발하다. 청취자의 의견을 듣다보니 논쟁의 범위는 머지않아 직업·지역을 넘어서 나이·국적·소득 더나

아가 심지어는 성별 차등적용이라는 영역까지 확장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자아낸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과연 국민들의 정서와 대한민국 사회가 '차등적용'이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해당 제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용 범위와 제도 시행 방향이 어느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의 문제다.

'차등적용' 논쟁에 대해 필자는 개별적 질문과 해당 문항에 대해 개별적 답변을 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선 지역 격차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과 지역·업종·사회적 약자에 대

한 차별의 차이를 '차등적용' 옹호론자들과 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 정부가 지난 5월22일 발표한 2026년부터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호남을 포함한 각 지방에서 그동안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느라 컸던 전력망 부담을 줄일 것이란 지역적 기대감이 크다. 이처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도는 차후 차등적용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을 때 좋은 관례로 남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차등적용 정책의 흐름에 매몰돼 각종 분야와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차등적용을 도입하려는 국민적 열풍이 불까 봐 다소 걱정스

럽기도 하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란에 관해 광주 한 노동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쟁점에 대해 사용자 측의 주장을 옹호하며 사회 양극화의 주범을 자처한다"라는 비판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노사갈등이 아니라 차등화로 인해 파생될 여러 가지 차별과 불평등, 부조리를 재고해 봐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에 대한 편견적 인식을 더 부추기고 특정 업종에 대한 멸시를 가중할 수 있는 재료가 돼 하나의 법적 무기로 탄생해 사회적 약자들을 '제도'라는 테두리에 가둬 놓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또다른 수단이 되선 안 될 것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